치과기공사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권 순 석*, 김 윤 신
동우대학 치기공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 교실 및 대학원 보건학과

A Study of the status of Dental technicians' leisure activities

Soon-Suk Kwon*, Yoon-Shin Kim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Dong-u College*
Department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 Dept. of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ajor factors in their working conditions affecting the enlargement of leisure activities of dental technicians. We also present a need for dental technicians to assign more time many different kinds of leisure activities for their quality life. To this end, we examined the status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ntal technicians' leisure activities among the randomly selected subjects who are working in the area of Seoul, Gyonggi-do, and Gangwon-do through the analysis of the 311 sheets of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conclusions from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1. On weekdays, non participants in leisure activities were found to be 64.0%, and in the case of weekends, the participants were reached to 70.7%. Those who enjoy any leisure activities in either of weekdays and weekends were 34.1%, 27.3% of the dental technicians did not have any leisure activities. Therefor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hown in the participations of leisure activities between weekdays and weekends.

2. Of the types of leisure activities in both weekdays and weekends, sports activities were ranked at the top 33.4%, 29.6% respectively, which is followed by going to the cinema/theatre/exhibitions, etc 21.9%, 26.0%, games/entertainment 14.5%, 14.8%, hobbies/cultural activities 14.1%, 12.5%, sightseeing/picnic 6.4%, 7.4%.

3. Of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ies, the types of leisure activities between weekdays and weekends showed difference in gender, company and information regarding leisure activities in age, company and the place of leisure activities, and leisure information in the marital status, career and monthly income in company, company and leisure information in the job position,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However,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among the other general items of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ies.

* 본 연구는 2008학년도 동우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성 명	권 순 석	전 화	033-638-0428	E-mail	kss37@duc.ac.kr
	주 소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244 동우대학 치기공과				

Considering only works on weekdays policy is currently permeating into almost every business sector, dental business owners or managers are advised to consider more effective time management 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such as keeping reasonable manufacturing time through cooperations with the dentists, regularity of working hours, incentive system, introduction of credible over time payment. Which will provide their staff with more times and opportunities to enjoy their leisure activities. Additionally, the concrete and feasible ways of motivating and activating the leisure activities of dental technicians are in need of further researches and studies.

Key word : dental technician, leisure, leisure activitie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과거부터 추진해온 산업화에 따라 가계소득의 증가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추구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일반인들의 생활양식이나 개인적인 행복의 결정 요소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안혜영, 1995),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 7월 1일부터 1,000명이상의 사업장과 일부 금융권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평일 및 주말의 시간적 여유 증가는 자기계발과 함께 가족과 보내는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우리사회가 일 중심에서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여가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사회적 ·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고 현재도 사회체계와 시대적 세대 간 차이에 의해 여가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 뜻도 일정하지 않다(김상수, 2005).

여가란 시간적으로는 노동시간과 필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판단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유 재량적 시간으로 보통 협의의 개념으로 간주되며(Parker, 1971), 여러 단계의 다차원적인 활동이 종합되어 있다(Stewart, 1998). 또한 일과 가족 및 사회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휴식이나 오락 또는 지식,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의 자유로운 현실을 위한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과 그 활동 내용으로 정의된다(노용구, 2002).

현대인들은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길어진 활동 시간과 자유 시간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 시간에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이재홍, 1996).

선행연구에서 김홍백(2001)은 직장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을 도모함으로써 직장생활에 더 많은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성영호 외(2003)는 직장인에게 있어 여가활동은 효율적인 활동과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2007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높았다는 발표를 보더라도 여가생활 참여가 삶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동아일보, 2007).

그러나 현재까지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한 여가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발표가 전무하며, 김연수(1992)는 우리나라 치과기공사들이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부분 1일 평균 10시간 이상의 작업으로 개인적 발전은 물론 여가선용의 기회도 전무하여 직무만족의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민경진 외(2004)는 치과기공사의 근무시간 개선과 취미생활을 격려하는 등 후생복지와 여가활용시간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치과기공사의 여가활동 실태 등의 조사 연구를 통해 치과기공사들의 여가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치과

기공계에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근무여건 등의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치과기공사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생활에서 여유와 자기계발을 통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여가의 대중화 및 주 5일제 근무가 2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 · 반영되고 있는 현실과 달리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과 평균 10시간 이상의 근무여건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치과기공사의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치과기공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활동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치과기공사들의 여가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기본적 근무환경 개선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기공사의 여가참여 실태와 유형을 파악한다.

둘째, 치과기공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참여 실태와 여가활동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치과기공사의 여가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 · 강원도 소재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총 400명을 임의 추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7년 7월 14일부터 2008년 1월 15일까지 우편발송 및 직접배부를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미회수설문지와 답변이 불명확하거나 기재 누락 등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311매(77.8%)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는 Beard와 Ragheb(1980)에 의해 개발되고 이종길(1992), 김영아(2005), 구미연(2006)의 연구에서 사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여가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 특성 10개 문항, 여가활동에 관한 15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 연구의 특성에 따라 일부 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선다형 자기기입방법을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Win 1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및 여가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근무 중인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치과기공사의 여가활동 실태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는 제한이 따른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 311명 중 남성이 212명(68.2%)으로 여성 99명(31.8%)보다 2배정도 많았으며, 연령은 20~29세가 149명(47.9%)으로 가장 많고 30~39세가 125명(40.2%)으로 40대 이하가 274명(88.1%)으로 본 연구의 주대상자로 나타났다. 결혼유무는 미혼자가 189명(60.8%)으로 많았고, 경력은 9년 이상이 81명(2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2년과 3~4년이 동일하게 각각 60명(19.3%)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100~150만원이 103명(33.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1~200만원이 80명(25.7%)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의 약 59%가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직위는 일반기사가 162명(52.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조기사가 53명(17.0%)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기타 12명(3.9%)은 실습사원(intern)이나 시간제(part-timer)로 근무하고 있었다. 가족 수는 4명이 119명(38.3%)으로 가장 많고 1명인 41명(13.2%)은 자취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담당직무는 도재가 120명(38.6%)으로 가장 많고 크라운 82명(26.4%), 국소(총)의치 51명(16.4%) 순이었으며, 기타 30명(9.6%)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소 · 실장

급 또는 Implant 등의 특수 보철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이상이 122명(39.2%)으로 가장 많고 9~10시간 77명(24.8%), 10~11시간 70명(22.5%) 순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하루 평균 법정근무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한 편이다가 120명(38.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15명(37.0%),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가 49명(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 중 249명(80.1%)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건강하다고 하였다.

2. 여가활동 실태 및 여가관련 사항

1) 여가활동 실태

치과기공사의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여가활동 참여 유무의 경우 총 311명 중 평일에는 미 참여자가 199명(64.0%)으로 참여자 112명(36.0%)보다 많았으며, 주말에는 참여자가 220명(70.7%)으로 미 참여자 91명(29.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경우 평일은 1~2시간이 59명(52.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시간미만이 28명(25.0%)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은 2~3시간이 67명(30.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2시간과 4시간 이상이 동일하게 각각 47명(21.4%)으로 나타났다.

참여횟수의 경우 주중에는 주 1회가 148명(47.6%)으로 가장 많고 주 2~3회 87명(28.0%), 기타 35명(1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말은 월 2회가 100명(32.2%), 매주 64명(20.6%), 월 1회 62명(19.9%)순으로 나타났다.

여가 희망횟수는 주 2~3회가 132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주 3~4회 66명(21.2%), 주 1회 50명(16.1%)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가 152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다가 138명(44.4%)로 나타나 연구대상자 중 290명(93.3%)은 여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필요 없다와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동반자의 경우는 친구/애인이 156명(50.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족/친지 80명(2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치과기공사의 여가활동 실태

여가활동 특성		구 분	빈 도 (N)	유효 퍼센트 (%)
1. 활동유무	평 일	① 예	112	36.0
		② 아니오	199	64.0
	주 말	① 예	220	70.7
		② 아니오	91	29.3
2. 여가시간	평 일	① 1시간미만	28	25.0
		② 1~2시간	59	52.7
		③ 2~3시간	17	15.2
		④ 3~4시간	7	6.3
		⑤ 4시간 이상	1	0.9
	계		112	100
	주 말	① 1시간미만	13	5.9
		② 1~2시간	47	21.4
		③ 2~3시간	67	30.5
		④ 3~4시간	46	20.9
		⑤ 4시간 이상	47	21.4
	계		220	100

계속 →

여가활동 특성		구 분	빈 도 (N)	유효 퍼센트 (%)
3. 참여횟수	주 중	① 주 1회	148	47.6
		② 주 2~3회	87	28.0
		③ 주 3~4회	21	6.8
		④ 주 4~5회	13	4.2
		⑤ 매일	7	2.3
		⑥ 기타	35	11.3
	주 말	① 월 1회	62	19.9
		② 월 2회	100	32.2
		③ 월 3회	54	17.4
		④ 매주	64	20.6
		⑤ 기타	31	10.0
4. 희망횟수		① 주1회	50	16.1
		② 주2~3회	132	42.4
		③ 주3~4회	66	21.2
		④ 주4~5회	34	10.9
		⑤ 매일	21	6.8
		⑥ 기타	8	2.6
5. 필요성		① 매우 필요하다.	152	48.9
		② 필요하다.	138	44.4
		③ 보통이다.	21	6.8
		④ 필요 없다.	0	0.0
		⑤ 전혀 필요 없다.	0	0.0
6. 동반자		① 가족/친지	80	25.7
		② 친구/애인	156	50.2
		③ 회사동료/이웃	30	9.6
		④ 동호회/단체	15	4.8
		⑤ 혼자	30	9.6
합 계			311	100

2) 여가목적 및 여가활동 유형

치과기공사의 여가목적의 경우 피로회복과 휴식이 110명(35.4%)으로 가장 많고 스트레스 해소 70명(22.5%), 건강 및 체력단련 67명(21.5%), 폭넓은 경험과 교양지식 획득 22명(7.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상 능률 향상은 2명(0.6%)으로 가장 적었다. 여가장소의 경우 스포츠센터/운동장이 79명(25.4%)으로 가장 많고 집 78명(25.1%), 극장 43명(13.8%), 집근처 산책로/놀이터 42명(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원/평생교육원이 5명(1.6%)으로 가장 적었다.

여가정보에서는 인터넷이 114명(36.7%)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친구 82명(26.4%), TV/신문 59명(19.0%)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웃이 7명(2.3%)으로 가장 적었다.

치과기공사의 여가활동 유형의 경우 평일과 주말 모두 스포츠부문이 각각 104명(33.4%) 92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람/감상부분이 각각 68명(21.9%)과 81명(26.0%), 놀이/오락부분이 각각 45명(14.5%)과 46명(14.8%), 취미/교양부문이 각각 44명(14.1%)과 39명(12.5%)순으로 나타났으며, 관광/행락 부문이 각각 20명(6.4%)과 23명(7.4%)로 가장 적었다.

3) 희망여가 및 여가관련 사항

치과기공사의 희망여가 유형과 여가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응답 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희망하는 여가유형 1순위에서는 스포츠 부문이 133명(42.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취미/교양부문 56명(18.0%), 관람/감상부문과 관광/행락부문이 동일하게 각각 42명(13.5%)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취미/교양부문이

65명(22.6%)으로 가장 많고 관람/감상부문 53명(18.5%), 관광/행락부문 50명(17.4%)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스포츠 부문이 177명(29.6%)으로 가장 많고 취미/교양부문 121명(20.2%), 관람/감상부문 95명(15.9%), 관광/행락부문 92명(15.4%)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을 위한 필요사항 1순위로는 여가활동시 비용의 저렴이 74명(23.8%)으로 가장 많고 공공 스포츠시설의 확충 65명(20.9%), 여가 대중화와 여가 프로그램개발이 동일하게 각각 52명(16.7%)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여가활동시 비용의 저렴이 101명(34.7%)으로 가장 많고 여가의 대중화 40명(13.7%), 공공 스포츠시설의 확충 39명(13.4%)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여가활동시 비용의 저렴이 175명(29.1%)으로 가장 많고 공공 스포츠시설 확충 104명(17.3%), 여가의 대중화 92명(15.3%)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시 장애사항 1순위로는 여가 시간 부족이 232명(74.6%)으로 가장 많고 여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38명(12.2%), 직장(가족)의 이해와 협조 부족 20명(6.4%)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여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103명(35.5%)으로 가장 많고 직장(가족)의 이해와 협조 부족 48명(16.6%), 여가 시간 부족 41명(14.1%)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여가 시간 부족이 273명(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141명(23.5%), 직장(가족)의 이해와 협조 부족이 68명(11.3%)순으로 나타났다.

여가참여를 위한 지원 사항 1순위로는 시간적 여유 제공이 206명(66.2%)으로 가장 많고 경제적 지원 61명(19.6%), 여가의 관심과 이해 24명(7.7%)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81명(27.8%)으로 가장 많고 여가의 관심과 이해 68명(23.4%), 시간적 여유 제공 67명(23.0%)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시간적 여유 제공이 273명(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지원 142명(23.6%), 여가의 관심과 이해 92명(15.3%)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치과기공사의 희망여가 유형 및 여가관련 사항

여가관련 사항	구 분	빈 도 (N)			유효 퍼센트 (%)		
		1순위	2순위	계	1순위	2순위	계
1. 희망여가	① 스포츠부문	133	44	177	42.8	15.3	29.6
	② 취미/교양 부문	56	65	121	18.0	22.6	20.2
	③ 관람/감상 부문	42	53	95	13.5	18.5	15.9
	④ 사교 부문	18	30	48	5.8	10.5	8.0
	⑤ 관광/행락 부문	42	50	92	13.5	17.4	15.4
	⑥ 놀이/오락 부문	20	45	65	6.4	15.7	10.9
	합 계	311	287	598		100	
2. 필요사항	① 여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	52	25	77	16.7	8.6	12.8
	② 편중된 여가시설의 분산	37	37	74	11.9	12.7	12.3
	③ 공공 스포츠시설의 확충	65	39	104	20.9	13.4	17.3
	④ 여가의식의 수준향상	25	30	55	8.0	10.3	9.1
	⑤ 여가의 대중화	52	40	92	16.7	13.7	15.3
	⑥ 여가활동시 비용의 저렴	74	101	175	23.8	34.7	29.1
	⑦ 기타	6	19	25	1.9	6.5	4.2
	합 계	311	291	602		100	
3. 장애사항	① 여가 시간 부족	232	41	273	74.6	14.1	45.4
	② 직장(가족)의 이해와 협조 부족	20	48	68	6.4	16.6	11.3
	③ 여가 정보 부족	11	30	41	3.5	10.3	6.8
	④ 여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38	103	141	12.2	35.5	23.5
	⑤ 여가 장소(시설) 부족	6	37	43	1.9	12.8	7.2
	⑥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부족	1	26	27	0.3	9.0	4.5
	⑦ 기타	3	5	8	1.0	1.7	1.3
	합 계	311	290	601		100	

계속 →

여가관련 사항	구 분	빈 도 (N)			유효 퍼센트 (%)		
		1순위	2순위	계	1순위	2순위	계
4. 지원사항	① 경제적 지원	61	81	142	19.6	27.8	23.6
	② 여가의 관심과 이해	24	68	92	7.7	23.4	15.3
	③ 시간적 여유 제공	206	67	273	66.2	23.0	45.3
	④ 함께할 시간 제공	12	29	41	3.9	10.0	6.8
	⑤ 여가장소(시설) 마련	4	15	19	1.3	5.2	3.2
	⑥ 여가에 관한 지식과 정보제공	0	19	19	0.0	6.5	3.2
	⑦ 기타	4	12	16	1.3	4.1	2.7
	합 계	311	291	602		10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 차이

1) 여가참여 차이

치과기공사의 평일과 주말에 여가활동 참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평일 또는 주말 중 한 곳에서만 참여하는 경우가 120명(38.6%)으로 가장 많고, 평일과 주말 모두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는 106명(34.1%)이었으며, 전혀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85명(27.3%)으로 나타나 평일과 주말의 여가활동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표 3〉 치과기공사의 여가참여 차이

여가참여 유무		주말여가		평일여가 계	결 과
		예	아니오		
평일여가	예	106(34.1%)	6(1.9%)	112(36.0%)	x^2=48.317 *df*=1 p=.000
	아니오	114(36.7%)	85(27.3%)	199(64.0%)	
주말여가 계		220(70.7%)	91(29.3%)	311(100%)	

2)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른 평일 여가활동에서 남성은 스포츠부문이 85명(27.3%)으로, 여성은 관람/감상 부문이 34명(10.9%)으로 가장 많았다. 주말 여가활동에서 남성은 스포츠부문이 76명(24.4%)으로, 여성은 관람/감상 부문이 37명(1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는 평일과 주말 모두 스포츠부문에 관련된 여가활동 참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에서 평일 여가유형과 주말에 참여하는 여가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그러나 나머지 여가활동 특성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

여가 유형 \ 성 별		남 성	여 성	계	결 과
평일여가	스포츠부문	85(27.3%)	19(6.1%)	104(33.4%)	x^2=31.352 *df*=5 p=.000
	취미/교양 부문	24(7.7%)	20(6.4%)	44(14.1%)	
	관람/감상 부문	34(10.9%)	34(10.9%)	68(21.9%)	
	사교 부문	16(5.1%)	14(4.5%)	30(9.6%)	
	관광/행락 부문	16(5.1%)	4(1.3%)	20(6.4%)	
	놀이/오락 부문	37(11.9%)	8(2.6%)	45(14.5%)	

계속 →

여가 유형 \ 성 별		남 성	여 성	계	결 과
주말여가	스포츠부문	76(24.4%)	16(5.1%)	92(29.6%)	χ^2=34.179 *df*=5 p=.000
	취미/교양 부문	27(8.7%)	12(3.9%)	39(12.5%)	
	관람/감상 부문	44(14.1%)	37(11.9%)	81(26.0%)	
	사교 부문	11(3.5%)	19(6.1%)	30(9.6%)	
	관광/행락 부문	16(5.1%)	7(2.3%)	23(7.4%)	
	놀이/오락 부문	38(12.2%)	8(2.6%)	46(14.8%)	
합 계		212(68.2%)	99(31.8%)	311(100%)	

3)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 시 동반자의 경우 20~29세는 친구/애인이 109명(35.0%)으로 가장 많고, 30~39세와 40~49세는 가족/친지가 각각 50명(16.1%)과 16명(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가정보의 경우 20~29세와 30~39세는 인터넷이 동일하게 55명(17.7%)으로 가장 많고, 40~49세는 TV/신문이 11명(3.5%), 50~59세는 친구가 3명(1.0%)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에서 동반자와 여가정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그러나 나머지 여가활동 특성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

여가 특성 \ 연 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계	결 과
동반자	가족/친지	12(3.9%)	50(16.1%)	16(5.1%)	2(0.6%)	80(25.7%)	χ^2=97.964 *df*=12 p=.000
	친구/애인	109(35.0%)	43(13.8%)	4(1.3%)	0(0%)	156(50.2%)	
	회사동료/이웃	7(2.3%)	17(5.5%)	6(1.9%)	0(0%)	30(9.6%)	
	동호회/단체	7(2.3%)	3(1.0%)	3(1.0%)	2(0.6%)	15(4.8%)	
	혼자	14(4.5%)	12(3.9%)	4(1.3%)	0(0%)	30(9.6%)	
여가정보	친구	51(16.4%)	22(7.1%)	6(1.9%)	3(1.0%)	82(26.4%)	χ^2=50.769 *df*=18 p=.000
	가족	5(1.6%)	5(1.6%)	5(1.6%)	1(0.3%)	16(5.1%)	
	TV/신문	23(7.4%)	25(8.0%)	11(3.5%)	0(0%)	59(19.0%)	
	이웃	1(0.3%)	5(1.6%)	1(0.3%)	0(0%)	7(2.3%)	
	선, 후배	12(3.9%)	5(1.6%)	2(0.6%)	0(0%)	19(6.1%)	
	인터넷	55(17.7%)	55(17.7%)	4(1.3%)	0(0%)	114(36.7%)	
	기타	2(0.6%)	8(2.6%)	4(1.3%)	0(0%)	14(4.5%)	
합 계		149(47.9%)	125(40.2%)	33(10.6%)	4(1.3%)	311(100%)	

4) 결혼유무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

결혼유무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미혼인 경우 여가활동 시 동반자로 친구/애인이 136명(43.7%)으로 가장 많고 기혼은 가족/친지가 69명(22.2%)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여가장소의 경우 미혼은 스포츠센터/운동장이 49명(15.8%)으로 가장 많고 기혼은 집이 32명(10.3%)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여가정보의 경우 미혼과 기혼 모두 인터넷이 각각 76명(24.4%)과 38명(12.2%)으로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 미혼은 친구가 62명(19.9%), 기혼은 TV/신문이 31명(10.0%)인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결혼유무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에서 동반자와 여가장소 그리고 여가정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그러나 나머지 여가활동 특성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결혼유무에 따른 여가활동특성차이

여가 특성 \ 결혼 유무		미 혼	기 혼	계	결 과
동반자	가족/친지	11(3.5%)	69(22.2%)	80(25.7%)	x^2=129.692 *df*=4 p=.000
	친구/애인	136(43.7%)	20(6.4%)	156(50.2%)	
	회사동료/이웃	12(3.9%)	18(5.8%)	30(9.6%)	
	동호회/단체	7(2.3%)	8(2.6%)	15(4.8%)	
	혼자	23(7.4%)	7(2.3%)	30(9.6%)	
여가장소	집	46(14.8%)	32(10.3%)	78(25.1%)	x^2=30.282 *df*=8 p=.000
	스포츠센터/운동장	49(15.8%)	30(9.6%)	79(25.4%)	
	학원/평생교육원	2(0.6%)	3(1.0%)	5(1.6%)	
	극장	37(11.9%)	6(1.9%)	43(13.8%)	
	커피숍/레스토랑	8(2.6%)	1(0.3%)	9(2.9%)	
	공원/박물관/미술관	7(2.3%)	11(3.5%)	18(5.8%)	
	백화점/쇼핑센터	13(4.2%)	4(1.3%)	17(5.5%)	
	집근처 산책로/놀이터	16(5.1%)	26(8.4%)	42(13.5%)	
	기타	11(3.5%)	9(2.9%)	20(6.4%)	
여가정보	친구	62(19.9%)	20(6.4%)	82(26.4%)	x^2=30.148 *df*=6 p=.000
	가족	3(1.0%)	13(4.2%)	16(5.1%)	
	TV/신문	28(9.0%)	31(10.0%)	59(19.0%)	
	이웃	3(1.0%)	4(1.3%)	7(2.3%)	
	선, 후배	12(3.9%)	7(2.3%)	19(6.1%)	
	인터넷	76(24.4%)	38(12.2%)	114(36.7%)	
	기타	5(1.6%)	9(2.9%)	14(4.5%)	
합 계		189(60.8%)	122(39.2%)	311(100%)	

5) 경력과 월수입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

경력과 월수입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경력의 경우 여가활동 시 동반자에서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은 친구/애인이 각각 29명(9.3%), 43명(13.8%), 40명(12.9%), 17명(5.5%), 16명(5.1%)으로 가장 많고, 9년 이상은 가족/친지가 47명(15.1%)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월수입에서는 100~150만원과 151~200만원에서는 친구/애인이 각각 75명(24.1%)과 49명(15.8%)으로 가장 많고, 251~300만원, 301~350만원, 350만 원 이상에서는 가족/친지가 각각 22명(7.1%), 10명(3.2%), 11명(3.5%)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250만원은 친구/애인과 가족/친지가 각각 16명(5.1%)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력과 월수입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에서 동반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나머지 여가활동 특성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직위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

직위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소장과 실장은 여가활동 시 동반자로 가족/친지가 각각 18명(5.8%)과 11명(3.5%)으로 가장 많고 주임기사, 일반기사, 보조기사, 기타에서는 친구/애인이 각각 15명(4.8%), 91명(29.3%), 36명(11.6%), 7명(2.3%)으로 가장 많았다.

여가정보의 경우 소장, 주임기사, 보조기사, 실장은 친구가 각각 9명(2.9%), 12명(3.9%), 20명(6.4%), 5명(1.6%)으로 가장 많고 일반기사와 기타에서는 인터넷 각각 75명(24.1%)과 4명(1.3%)으로 가장 많았다.

직위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에서 동반자와 여가정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그러나 나머지 여가활동 특성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경력과 월수입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

일반 특성 \ 동 반 자		가족/친지	친구/애인	회사동료/이웃	동호회/단체	혼 자	계	결 과
경 력	1년 미만	3(1.0%)	29(9.3%)	1(0.3%)	2(0.6%)	3(1.0%)	38(12.2%)	χ^2=98.611 *df*=20 p=.000
	1~2년	5(1.6%)	43(13.8%)	2(0.6%)	4(1.3%)	6(1.9%)	60(19.3%)	
	3~4년	5(1.6%)	40(12.9%)	6(1.9%)	1(0.3%)	8(2.6%)	60(19.3%)	
	5~6년	12(3.9%)	17(5.5%)	5(1.6%)	2(0.6%)	3(1.0%)	39(12.5%)	
	7~8년	8(2.6%)	16(5.1%)	5(1.6%)	1(0.3%)	3(1.0%)	33(10.6%)	
	9년 이상	47(15.1%)	11(3.5%)	11(3.5%)	5(1.6%)	7(2.3%)	81(26.0%)	
월수입	100~150만원	8(2.6%)	75(24.1%)	4(1.3%)	5(1.6%)	11(3.5%)	103(33.1%)	χ^2=87.399 *df*=20 p=.000
	151~200만원	13(42.%)	49(15.8%)	6(1.9%)	3(1.0%)	9(2.9%)	80(25.7%)	
	201~250만원	16(5.1%)	16(5.1%)	8(2.6%)	2(0.6%)	5(1.6%)	47(15.1%)	
	251~300만원	22(7.1%)	11(3.5%)	5(1.6%)	1(0.3%)	3(1.0%)	42(13.5%)	
	301~350만원	10(3.2%)	1(0.3%)	3(1.0%)	2(0.6%)	0(0%)	16(5.1%)	
	350만원 이상	11(3.5%)	4(1.3%)	4(1.3%)	2(0.6%)	2(0.6%)	23(7.4%)	
합 계		80(25.7%)	156(50.2%)	30(9.6%)	15(4.8%)	30(9.6%)	311(100%)	

〈표 8〉 직위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차이

여가 특성 \ 직 위		소 장	주임기사	일반기사	보조기사	실 장	기 타	전 체	결 과
동반자	가족/친지	18(5.8%)	12(3.9%)	34(10.9%)	4(1.3%)	11(3.5%)	1(0.3%)	80(25.7%)	χ^2=71.999 *df*=20 p=.000
	친구/애인	2(0.6%)	15(4.8%)	91(29.3%)	36(11.6%)	5(1.6%)	7(2.3%)	156(50.2%)	
	회사동료/이웃	4(1.3%)	5(1.6%)	15(4.8%)	3(1.0%)	3(1.0%)	0(0%)	30(9.6%)	
	동호회/단체	3(1.0%)	0(0%)	6(1.9%)	3(1.0%)	0(0%)	3(1.0%)	15(4.8%)	
	혼자	1(0.3%)	3(1.0%)	16(5.1%)	7(2.3%)	2(0.6%)	1(0.3%)	30(9.6%)	
여가정보	친구	9(2.9%)	12(3.9%)	33(10.6%)	20(6.4%)	5(1.6%)	3(1.0%)	82(26.4%)	χ^2=65.596 df=30 p=.000
	가족	4(1.3%)	1(0.3%)	10(3.2%)	1(0.3%)	0(0%)	0(0%)	16(5.1%)	
	TV/신문	7(2.3%)	11(3.5%)	30(9.6%)	4(1.3%)	4(1.3%)	3(1.0%)	59(19.0%)	
	이웃	1(0.3%)	0(0%)	3(1.0%)	0(0%)	3(1.0%)	0(0%)	7(2.3%)	
	선, 후배	2(0.6%)	2(0.6%)	6(1.9%)	7(2.3%)	2(0.6%)	0(0%)	19(6.1%)	
	인터넷	4(1.3%)	8(2.6%)	75(24.1%)	19(6.1%)	4(1.3%)	4(1.3%)	114(36.7%)	
	기타	1(0.3%)	1(0.3%)	5(1.6%)	2(0.6%)	3(1.0%)	2(0.6%)	14(4.5%)	
합 계		28(9.0%)	35(11.3%)	162(52.1%)	53(17.0%)	21(6.8%)	12(3.9%)	311(100%)	

Ⅳ. 고 찰

현대사회에서 여가활동은 자유로운 시간을 소모하며 무의미하게 즐기는 의미를 넘어 가정과 직장 생활 및 사회활동에 활력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바른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여가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활의 만족과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큰 수단으로 활용하며(Fridgen, 1984), 물질적 풍요와 함께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게 되었다(송준화, 2006).

이러한 현실에 따라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일에는 여가활동 미 참여자가 64.0%로 많고, 주말에는 참여자가 70.7%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평일 또는 주말 중 한 곳에서만 참여하는 경우가 38.6%, 전혀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27.3%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연구대상자 311명 중 93.3%는 여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치과기공사 대부분이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평일에는 여가활동을 못 하고 주말에만 여가참여를 하는 원인으로는 나정숙 외(2007)의 결과에서 치과기공사의 85.8%가 1시간에서 4시간 이상 1일 평균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김정숙(2004)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도 각각 83.1%와 98.3%가 1일 9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치과기공사들이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성영호 외(2003)의 연구에서도 30~40대 미만 직장인들이 시간제약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시간부족이 가장 큰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함께 구미연(2006)의 연구에서 20 · 30대 미혼 직장인의 여가 생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기공소는 출 ·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거래처 치과들에서 환자의 약속시간과 치료시간에 따라서 보내오는 치과보철물의 접수시간이 상이하고, 의뢰되는 보철물의 수도 매일 다르며, 치과기공사가 하루에 완성해야 하는 치과보철물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 치과에서 환자와 약속된 시간 전까지 보철물을 완성해서 다시 보내 줘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치과보철물의 양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지므로 이를 지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렇게 퇴근시간 늦고 불규칙하게 되는 다른 원인으로는 대부분 치과보철물의 제작기간이 3~4일로 짧고, 치과보철물 제작이 급행으로 의뢰되는 경우도 많으나 거래처 치과와 환자의 처지를 생각하면 거부하기가 힘들고, 치과보철물 제작과정이 한 사람에 의해 완성되지 않고 보조기사와 주임 또는 책임기사 간에 분업화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두 직무간의 기술 차이나 어느 한 직위나 직무 담당자가 이직 등으로 인해 공백이 생길 경우 나머지 잔류인원들이 다른 공정까지 책임지게 되어 근무시간이 길어지고 원활한 제작공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치과기공사들의 여가목적으로는 피로회복과 휴식이 35.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스트레스 해소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의 장애 사항에서 여가시간 부족이 45.4%로 가장 많고, 여가참여를 위한 지원사항에서도 시간적 여유제공이 45.3%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도 위와 같은 치과기공계의 근무현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평일과 주말 여가활동 유형과 희망여가에서는 스포츠 부문이 각각 33.4%, 29.6%, 29.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미연(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었으며, 김승곤과 양명환(1995)의 연구에서도 스포츠 활동은 내적인 동기가 유발된 최적의 여가활동의 하나로 개인에게 능력감, 유능감, 자기결정력, 숙달감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가의 기능 중 일상생활 특히 노동생활에 있어 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신체의 균형적 건강유지 및 여러 가지 질병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체적 기능(김상수, 2005)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여가활동보다 매우 동적이고 타인과 함께 사회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적 능력측정과 함께 심신의 건강증진의 효과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건전한 인적관계 확대도 함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평일과 주말의 여가활동에서 남성은 스포츠 부문이 각각 27.3%와 24.4%로, 여성은 관람/감상 부문이 10.9%와 11.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이는 2006년과 2007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남성의 여가생활은 직장업무의 연장으로 이어져서 이루어지거나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여성의 여가활동은 개인적인 활동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며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소통적 여가활동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치과기공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 차이에서 연령, 결혼유무, 경력, 월수입, 직위항목이 여가활동 특성 중 '동반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구미연(2006)의 연구에서 30세 이상은 혼자, 30세 미만은 친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다는 결과와 본 연구에서 30세 이상은 가족/친지가 많았던 결과와는 상이했으

나, 30세 미만은 친구/애인이 많은 결과와는 일치하고 있으며, 2007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세대별 여가활동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김상수(2005)의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여가 활동에 차이를 보이며, 소득은 여가활동 선택 시 개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유형 선택에 차이가 난다는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대사회는 386세대, X세대, Y세대 등으로 구분되어 세대마다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커왔고 이에 따라 가치관, 생활관, 책임감 등에 차이가 있어 세대 간 감성적으로 쉽게 친밀감과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 하거나 동감하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사람인 동반자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유무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 차이에서 여가장소의 경우 미혼은 스포츠센터/운동장(15.8%), 집(14.8%), 극장(11.9%)순으로, 기혼은 집(10.3%), 스포츠센터/운동장(9.6%), 집근처 산책로/놀이터(8.4%)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치과기공사들이 자기계발을 위한 세미나 참여나 학원/평생교육원 수강 등 교육적인 여가활동보다는 직장에서 받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적인 여가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혼인 경우 육체적 건강과 함께 친구나 동료들과의 사교적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한 여가활동을 추구하고, 기혼자는 이와 더불어 늦은 귀가에 따른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한 봉사적인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07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에서는 평균 22.6가지의 여가활동을 경험한 반면 100만원 미만은 11.5가지로 나타나 여가활동에 빈부차가 뚜렷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집단 내에서 휴식활동의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휴식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여가경험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와 함께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치과기공사들의 여가활동 유형이 스포츠 부문에 한정되어 다양하지 못하고, 연구대상자의 약 59%가 월수입 200만 원 이하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참여자들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추구하기보다는 휴식적인 목적이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치과기공사들에게 여가 활동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여가참여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영호 외(2003)는 직장인들은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 스스로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직장 및 고용주는 과중한 업무경감과 여가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상희(2005)는 직장인에게 올바른 여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갖고 창조적이고 건전한 여가활용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것은 능률향상 및 경영자와 근로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정착과 함께 협동심과 소속감을 갖게 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치과기공소 운영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이직감소 및 공동체 의식 함양과 생산성향상을 통한 이익창출이 올바른 경영 방향임을 인식하고 직원들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과기공사들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증진과 아울러 자기계발의 계기가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자발적인 행동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우리나라 치과기공사의 여가활동 실태와 여가관련 특성 등의 조사를 통해 치과기공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여가활동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와 함께 치과기공사들의 여가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기본적 근무환경 개선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 강원도 소재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임의 추출 방법으로 설문조사 후 311매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일에는 미 참여자가 199명(64.0%)으로, 주말에는 참

여자가 220명(70.7%)으로 많고, 평일 또는 주말 중 한 곳에서만 참여하는 경우는 120명(38.6%), 평일과 주말 모두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는 106명(34.1%), 전혀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85명(27.3%)으로 나타나 평일과 주말의 여가활동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2. 여가시간의 경우 평일은 1~2시간이 59명(52.7%)으로, 주말은 2~3시간이 67명(30.5%)으로 가장 많고, 참여횟수는 주 중에는 주 1회가 148명(47.6%)으로, 주말은 월 2회가 100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여가의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가 152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대상자 중 290명(93.3%)은 여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3. 여가 동반자는 친구/애인이 156명(50.2%)으로, 여가 목적은 피로회복과 휴식이 110명(35.4%)으로, 여가 장소는 스포츠센터/운동장이 79명(25.4%)으로, 여가 정보에서는 인터넷이 114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4. 여가활동 유형의 경우 평일과 주말 모두 스포츠부문이 각각 104명(33.4%) 92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관람/감상부분 각각 68명(21.9%)과 81명(26.0%), 놀이/오락부분이 각각 45명(14.5%)과 46명(14.8%), 취미/교양부문이 각각 44명(14.1%)과 39명(12.5%), 관광/행락 부문이 각각 20명(6.4%)과 23명(7.4%) 순으로 나타났다.

5. 희망하는 여가유형은 스포츠 부문이 177명(29.6%)으로, 여가활동을 위한 필요사항은 여가활동시 비용의 저렴이 175명(29.1%)으로, 여가활동시 장애사항은 여가 시간 부족이 273명(45.4%)으로, 여가참여를 위한 지원 사항은 시간적 여유 제공이 273명(45.3%)으로 가장 많았다.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특성의 차이에서 성별은 평일과 주말에 참여하는 여가유형에서, 연령은 동반자와 여가정보에서, 결혼유무는 동반자와 여가장소, 여가정보에서, 경력과 월수입은 동반자에서, 직위는 동반자와 여가정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그러나 나머지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 특성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제 언

우리나라 치과기공사는 1972년 528명이 최초로 면허 취득 후 2006년 까지 21,453명이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7). 그러나 2007년 11월 30일까지 대한치과기공사 협회 내 가입한 시 · 도회 회원은 6,1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치과기보(2008. 2. 29)에서 보건의료분야 20개 직업군 중 치과기공사의 직무만족도가 3.5점으로 낮고, 향후 5년 후 일자리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19.0%에 그쳤으며, 특히 여성 치과기공사의 57.2%가 5년 후 일자리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치과기공사 직업수명을 5년으로 보고 있다는 치과기공사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영호 외(2007)의 연구에서 치과의료 이용의 지역별 효율성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감축이 필요한데 치과기공사의 경우 최대 84.3%(대전)에서 최소 14.6%(강원)까지 지역별 치과기공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한 결과를 볼 때 앞으로 치과기공사에 대한 직업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 치과기공계는 4대 사회공익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의무화 및 WTO체제에 의한 보건의료부문 개방과 함께 2011년까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일 근무제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사회현실을 주목한다면 치과기공계는 현재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치과기공료 현실화와 더불어 주 5일 근무제도에 따라 거래처 치과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치과보철물 수거시간과 의뢰기간 연장, 출 · 퇴근시간의 제도화와 성과급제 도입 등의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직원들에게 여가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 일부 치과기공소에서만 실시하던 4대 보험제도가 현재는 대부분의 치과기공소에서 일반적

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직원들에게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이직감소와 애사심 증대, 치과 보철물의 생산성 향상, 불량 보철물의 감소로 인한 재작업 시간 및 비용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최종적으로 치과기공소의 이익증대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식의 전환도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치과기공사는 아직까지 법적 근무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기공계에도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급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장시간의 근무시간과 불규칙한 퇴근시간 등 치과기공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다소나마 개설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치과기공사의 직업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대부분의 치과기공사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구미연. 20 · 30 대 미혼 직장인의 여가실태 및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상수.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승곤과 양명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과의 관계. 체육과학연구논문집, 창간호: 71-85, 1995.

김연수. 한국치과기공사의 직무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김영아. 직장인의 여가활동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정숙. 치과기공사의 사기요인 분석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26(1): 73-91, 2004.

김홍백. 직장인들의 여가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삼척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논문집, 6(1): 137-145, 2001.

나정숙 외. 치과기공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29(1): 129-138, 2007.

노용구. 여가학. 대경북스, 서울, 59-68, 2002.

동아일보. "주40시간 근무자 행복지수 높아". 사회면, 2007. 6. 28.

문화체육관광부. 2007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1-15, 2007. 9.

민경진 외. 치과기공사에 있어서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의 관련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1(1): 217-242, 2004.

성영호 외. 대기업 직장인들의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체육과학연구논총, 13(2): 107-117, 2003.

송준화. 청소년의 여가 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전문대학 논문집, 24(1): 55-86, 2006.

안상희. 직장인들의 근무형태에 따른 여가활동 형태와 여가만족도의 관계.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안혜영.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오영호 외.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윤영화. 여성층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도에 관한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이재홍. 스포츠 사회화 상황요인과 사회체육 참여의 관계.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이종길.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치과기보. "치과기공사 직무만족도 낮아". 303호, 2008. 2. 29.

통계청. 2007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008.

Fridgen JG. Environmental psychology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1(1): 19-39, 1984.

Parker Stanley R. The Future of Work and Leisure. London, Mac Gibbon And Kee, 1971.

Stewart WP. Leisure as multiphase experience: challenging tradi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4): 391-400, 1998.